

# 나주시 결혼 축하금 200만원으로 확대

### 기존 100만원서... 이달부터 시행 신혼부부 주거비·대출이자 지원 청년 정착 유인 다양한 시책 마련

나주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기존 100만원이던 결혼장려 지원금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 개편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부가 지급 대상이

다. 신청은 '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전까지 전남지역 거주 경력은 1년 이상, 나주시 거주 경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가 모두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는 각각 주소변동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분할 없이 일

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의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시책은 결혼 축하금 외에도 다양하다.

2년 간 매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택 신혼 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최대 3년 간 5만~15만원을 지급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시책 등이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혼 축하금 확대 지원 시책이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군 황룡강변에 9홀 '파크 골프장' 조성

### 고령층 생활스포츠 각광

탁 트인 장성군 황룡강변에 주민 레저 활동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 <사진> 장성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한 '황룡강 파크골프장'이 최근 완공돼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로 나무 재질의 공을 쳐서 잔디 위 홀(구멍)에 넣는 놀이다. 일반 골프와 같은 경기 규칙이 적용되지만 단순한 장비를 쓰는 탓에 신체에 무리가 없고, 비용이 저렴해 고령층에서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잔디 생육을 위해 개장을 미룬 파크골프장은 파릇파릇한 잔디가 자리를 잡으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SOC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황룡면 월평리 일원 9829㎡ 부지에 국비를 포함해 총 5억1000만원을 들여 9홀 규모로 준공했다.

파크골프장은 강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친화적 시설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황룡강이 선사하는 수려한 풍광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황룡강변 파크골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명품 체육시설"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체육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 도곡 애플수박 본격 출하

화순군 도곡면 농가에서 틈새작목인 애플수박 출하가 한창이다. 이번에 출하되는 애플수박은 아시아계열 국내 우량 품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무게 1~2kg에 12~14브릭스의 고당도로 화순 도곡로컬푸드매장, 광주 남구 로컬푸드직매장, 광주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개당 6000원~8000원 선이다.

화순군 도곡면 농가에서 틈새작목인 애플수박 출하가 한창이다. 이번에 출하되는 애플수박은 아시아계열 국내 우량 품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무게 1~2kg에 12~14브릭스의 고당도로 화순 도곡로컬푸드매장, 광주 남구 로컬푸드직매장, 광주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개당 6000원~8000원 선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제공>

## 장흥군 내저마을 감성돔 치어 25만마리 방류

장흥군이 최근 감성돔 서식지 조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감성돔 치어 25만 마리를 방류했다.

대덕읍 내저마을 등에서 진행된 감성돔 치어 방류 행사는 장흥군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주관으로, 장흥군수와 군의원, 해당 어촌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활어차 수조에 있는 모든 종자가 방류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상렬 내저어촌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업

인들도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바다로 간 감성돔이 어민들의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우리 군은 청정어장인 장흥군 해역에 정착성 어종인 감성돔을 매년 방류해 감성돔을 찾는 낚시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역의 관광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방류가 지역 어민과 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춘양면 벚틀바위 유원지 등

### 5곳 8월까지 비상근무자 배치

화순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춘양면 벚틀바위 유원지 등 5곳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하고 현장 관리에 나선다.

군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벚틀바위 유원지와 함께 청풍면 귀미뜰 유원지, 동북면 만경대와 숲정이, 사평면 봉황대를 관리지역으로 정해 특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까지 관리지역 풀베기를 마쳤고 부표 설치와 표지판 정비도 완료했다.

지난 1일에는 관리지역 5곳에 두 명씩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말은 구역에서 비상근무를 서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과 비상시 신속 대응 업무를 하게 된다.

군은 안전관리요원의 현장 배치 전 물놀이 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지난달 23일과 29일 화순소방서와 협력해 수난사고 CPR 등 응급처치 교육과 구명환, 구명조끼 등 장비 사용법을 교육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긴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비가 오거나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났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담양군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여름 휴가철 방문 휴양객 급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군 12개 읍·면 합동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산림 불법 형질변경,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산간 계곡 주변 야영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사방댐 물놀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해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며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야.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야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